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아티클

1. 노아 (9) 하나님의 창조과학 강연 - 이종헌

2쪽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0) 본론 - 옥봉흠

3쪽

3. The BIBLE Comes Alive(7)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6쪽

4. 창조단상 (10) 소금이 맛을 잃는다? - 박종환

13쪽

인사말

올 여름은 비가 많았습니다. 기나 긴 장마가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는지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더군다나 일 때문에 하루종일 밖에서 지냈던 저는 그 더위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기도 했고, 또 계획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순서와 강연이 있지만, 가장 귀한 강연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 땀별에 서서 햇살을 받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꼭 잠겨보는 것이 어떤지요!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8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튜디오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8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일시: 2003년 8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Geology: A Study Guide to fossils, Formations and the Flood (지질학)"

발표: 길소희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하나님의 창조과학 강연



하나님이 욥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강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제발 이렇게 믿어달라고 하는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풀지는 못한다. 타조는 황무지에 알을 낳는데 날이 더우면 그것이 익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의 발에 밟히기도 한다. 타조는 일단 알을 낳고 나면 그것이 자기가 난 것인지도 모르고, 제 새끼를 마치 남처럼 대한다. 타조는 그렇게 미련스럽다. 너는 타조가 어째서 그런지 아느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타조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다. 내가 타조를 만들 때 뇌를 눈알보다 작게 함으로써 그에게 지혜와 통명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뛰면 말보다 훨씬 빠르다. 내가 그렇게 설계했다. 또, 매가 왜 하늘 높이 날아가는지 아느냐? 독수리가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는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욥의 대답은 현대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타조가 진화가 덜 되었거나, 혹은 퇴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무지의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지껄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는 체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과학 강연을 듣고 자기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학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in evolution!”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집 짓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 뿐 아니라 사람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화론의 신봉자였던 히틀러의 생일인 4월 21일을 기념하여, 히틀러의 추종자인 어린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그 한 예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끼를 가지고 바위를 치나, 사람의 머리를 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미개한 생물로부터 진화된 동물이므로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대로 닮아 가는데, 인간이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닮아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달콤한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연을 보라, 동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동물은 새끼 낳을 때만 빼고 정말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 남녀의 비가 1:1인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지만,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옷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인간 스스로 최선을 다 해 보아도 해답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인간이 원숭이와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을 놓고 그대로 보면 정말로 세상이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빠진고리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해답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우리 지식의 시작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부품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려야 할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0) 본론 9. 성경에 나타난 수의 상징
옥봉흙 (산업정보대 교수, 성동교회 장로)**

◎ 9 수론(數論)

9를 나타내는 말에는 아홉을 뜻하는 기수 ‘테샤’(טשׁא) 또는 ‘티쉬아’(תשׁא)와 아홉 번째를 뜻하는 서수 ‘테쉬이’(טשיי)가 있다. 헬라어로는 ‘엔네아’(ἐννέα)와 아홉 번째를 의미하는 ‘엔나토스’(ἐννατος)를 들 수 있다.

9는 8에 1을 더한 수로, 천상의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통과 수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9라는 수가 완전한 수로 여겨지는 10에서 1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길한 수라고 여기기도 했다. 또한 성스러운 수인 3이 강화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완성의 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숫자 9는 조화와 완벽의 상징으로 여기는 3을 3배한 수로,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가장 완전한 수이며, 가장 큰 수로 여겨진다. 완벽한 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여유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숫자다. 예를 들어 9는 더 없이 높은 지고의 수이다. 아주 큰 키를 구척장신(九尺長身)이라 하고, 매우 먼 하늘을 ‘하늘 구만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많음을 뜻하는 구사일생(九死一生)과 깊음을 뜻하는 구중궁궐(九重宮闕 : 깊은 궁궐)등도 9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9는 3의 3곱으로 구약성경에서 일곱 번 나오며, 심판과 종국, 완성을 의미한다.

9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의 아홉 번째 알파벳은 뱀을 상징하는 ‘테트’(טֵט)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테타’(Θήτα, Θ:Θ)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아홉 또는 아홉과 관련된 개념을 죄인 하나의 회개와 연관 시켜 설명한다. 곧 아홉이라는 개념은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 올 때까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마18:12-13, 눅15:4, 7). 잃어버린 자,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도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 구 시다(막15:34, 마 27:45-46).

또한 숫자 구는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아홉 가지 열매를 나타내기도 한다.(갈 5:22).참고로 9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열여덟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낚시바늘(fish-hook) 또는 물고기를 낚는 갈고리(fishing hook)를 상징하는 ‘차데’(צ,ף:יָצ)다.

성경에서 <9> 또는 <아홉>이란 수사(修士)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호세아 제<9>년에 앓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사로 잡아갔고”(왕하 17:6)

“히스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왕하 25:1)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렘 39:1)

“에스겔은 제<9>년에 여호와와 말씀들을 받았다.”(겔 24:1)

이러한 <9>는 <3>의 3곱이며 그리고 구약성경에 단 <7>번만 나오고 있다. 구약성경의 <9>수는 ‘심판(審判:judgment)’ ‘종국(終局:finality)’ ‘완성(完成:completion)’을 의미한다.

◎ 10 수론(數論)

10을 나타내는 말에는 열을 뜻하는 기수 ‘에세르’(עשר) 또는 ‘아사르’(אשר)와 열 번째를 의미하는 서수 ‘아시리’(אשרי)가 있다. 10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데카’(δέκα)다. 일반적으로 열은 1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에서 하나는 작거나 부분적이고 미약한 것을 가리키지만, 열은 많거나 완벽하거나 전체를 가리킨다.

10에 해당되는 로마 숫자 X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계명을 연상케 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의 첫 문자 역시 X다. 또한 예수의 헬라어 ‘예수스’(Ιησοῦς) 역시 그 첫 문자가 1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이오타’다. 1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열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손’(hand)또는 손을 포함한 ‘팔뚝’(forearm)등을 상징하는 ‘요드’(י:יד)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이오타’(ιώτα,I : ι)다.

구약성경에서 10수는 전체, 완전한 우주성,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책임을 나타낸다. 이 10수가 신성수(神聖數)로서 특별히 중요시 되는 이유는 신적 완전수인 3과 영적 완전수인 7의 합으로 질서적 완전을 성립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10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관한 기사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10회 나온다(창1:3, 6, 11, 14, 20, 22, 24, 26, 29).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하신 열 가지 재앙이 나오기도 한다(출7:20-12:36).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계명 또한 열 가지로 나타난다(출20:1-17, 신5:7-22).

더불어 10은 성도들이 견디고 이겨 내야할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단 1:12-16, 계2:10). 또 예언서에서 10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단7:20,24 계12:3, 13:1, 17:3, 7, 12, 16).

참고로 100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열아홉 번째 알파벳은 바늘 귀(Eye of needle), 뒷머리(back of head)등을 상징하는 ‘코프’(קוף : ק)다.

<10> 또는 <열>이라는 수사(數詞)가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성막을 만들 때 각 판의 장은 <10> 규빗이다.” (출26:16)

“이스라엘 백성이 모은 메추라기는 <10> 세겔 이었다” (민11:32)

“솔로몬이 만든 성소(聖所)의 한 그룹의 두 날개의 길이가 <10> 규빗이다.”

(왕상 6:24)

“모세가 받은 계명은 <10> 계명이다” (출34:41)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도고는 의인 <10> 인에 와서 중지되었다”(창18:32)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妾)으로 받은 때가 가나안에 거한지 <10> 년이었다”(창16:3)

“아하스의 일영표(日影表)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는 <10>도를 물러가게 하였다”(왕하 20:11)

“여로보암이 예언자에게서 이스라엘 부족들의 상징으로 받은 옷 조각이 <10>이었다” (왕상 11:31)

“다니엘이 본 짐승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었다” (단 3:20)

“애굽에 내린 재앙은 <열> 가지이다”

“모세가 드린 생명의 속전은 <10> 게라(gerahs)였다” (출30:13)

“소득의 1/10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의 책임이다” (말 3:10)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번이나 시험을 하였다”(민14:2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0> 수는 그 공동의가 ‘전체(全體: totality)’ ‘완전한 우주성(宇宙性: a perfect universality)’ 완벽(完璧)한 하나님의 질서 (a completeness of divine order)’ 및 ‘인간(人間)의 책임(責任: responsibility)’을 나타낸다.

이 <10> 수가 신성수(神聖數)로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역시 다른 신성수 곧 <3>과 <7>의 합계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 계속)

잠깐 생각하기

알기 위해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진정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존재해야만 했던가?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한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한 채 몇 번만 좌절을 겪으면 이제 다시는 이러한 질문은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질문에 빠진 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부나 해”.

그런데 나는 이 질문을 사춘기 시절 내내 놓지 않고 물어 왔다. 진리가 발견되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사고 싶었기 때문이다. 발견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방황의 연속이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의문은 해결되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한마디 속에 道, 眞理, 生命의 모든 비밀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전능함이 담겨 있다. 그 길을 따라 가다보면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의미와 종말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 이치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 깨닫고 알게 된 진리가 무엇이며, 당신은 왜 존재하느냐”고 말이다. 그 때 나는 대답한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서종학 간사)

The BIBLE Comes Alive(7) by Clifford Wilson



니므롯 상의
클로우즈 업

칼라는 그 도시의 건립자인 성경의 니므롯을 따라 여전히 “니므롯”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에 들어 그 도시를 발굴한 사람은 Sir Max Mallowan 교수로서, 미스터리 소설 작가 Agatha Christie의 남편이다. (그녀는 매우 값나가는 두 개의 황금사자 장신구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 것으로 유명한데, 그녀는 200년 이상 니므롯의 진흙탕 우물 속에 있던 것을 현대 이라크의 작열하는 높은 온도에 아주 천천히 순응하도록 했다.)

니므롯 - “힘센 폭군”

창세기 10:8-9은 이렇게 말한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And Cush begat Nimrod: he began to be a mighty one in the earth.)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군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군이로다 하더라(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wherefore it is said, Even as Nimrod the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니므롯 한번 더

니므롯의 두상이 터키의 니므롯 산 사면에 있는데, 이 산은 해발 2,200피트이다. 이것은 예상 밖의 장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 한다. 니므롯의 영향은 정말로 널리 퍼졌었다!

니므롯의 이름은 “우리가 반역하자!”를 뜻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구스가 실제로 그를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하도록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니므롯은 땅의 많은 거주자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에루살렘 타굼* /Jerusalem Targum(구약성경의 아람말 번역-역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는 사냥에 있어서와 여호와 앞에 사악함에 있어서 강력하여서, 사람의 아들들을 사냥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와 심판에서 떠나 니므롯의 심판을 따르라!” 따라서 그것은 다음을 뜻한다: “니므롯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냥에 강하다는 것과 여호와 앞에 사악함에 있어 강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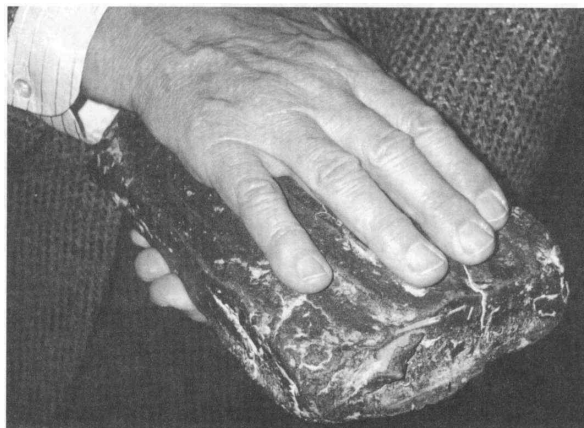
니므롯은 칼라뵤 아니라 바빌론을 건설했다(창세기 11:4, 8-9). 창세기 10:11은, ‘그(니므롯)가 시날/Shinar(바빌론)에서 앗수르/Asshur(앗시리아)로 나아갔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고대 수메르 문명

창세기 11장은 세속 역사에서 요즘 수메르/Sumer라고 부르는 시날/Shinar 평지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제 2절은 이렇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they journeyed from the east)”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Canaan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살았던 총체적인 영역 내에서, 문자 그대로의 여행이었다.

그리고 창세기 11:3-4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 집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의 고대 문명

구운 벽돌은 바벨탑 건설을 가능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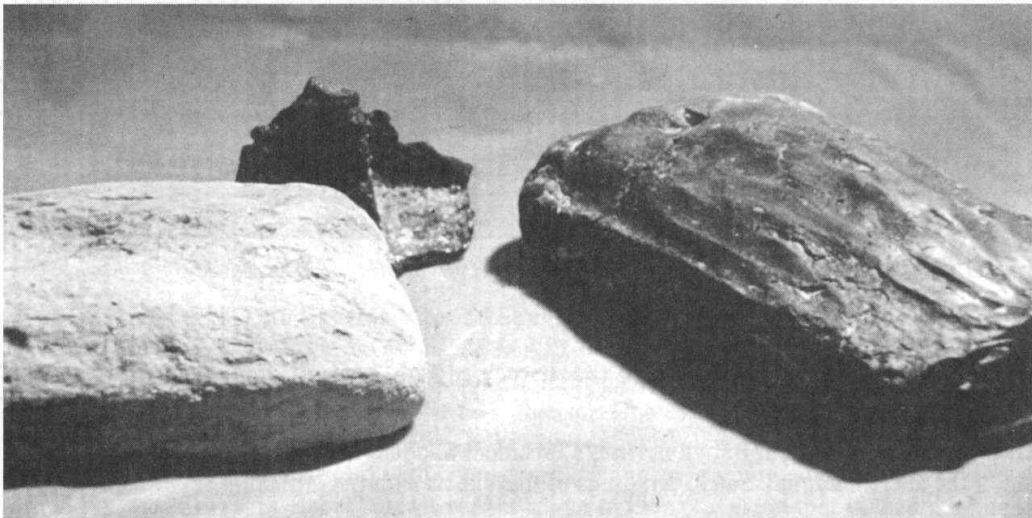
고대의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신성시하는 탑 주위로 도시들을 건설했다. Leonard Woolley 경은 우르 도시에서 그것을 발견했으며, 다른 장소에서도 그것이 발견된다. 구운 벽돌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돌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커다란 탑을 건설하기로 했다. 당연히 그들은 또다시 홍수의 심판이 닥치더라도 안전하기를 기대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초인이라고 여겼으며, 따라서 그들의 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뒤이어 다른 탑들이 발굴됨으로써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공통적인 양상은 탑의 맨 꼭대기 초점에 신의 사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성적 추행과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들이 이들 사당에서 자행되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원들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한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창세기 11:3)

초기의 수메르인들은 점토를 매우 많이 이용했다. 즉, 요리용 항아리,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 심지어 점토 서판 위에 글쓰기까지. 점토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점토를 파내어서 모가 난 썰기모양의 글자를 개발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종이”로 갈대 파피루스를 사용했으므로, 그들은 (나중에 페이퍼/paper로 알려진) 파피루스/papyrus의 면을 가로질러 쓸 때 흐르는 스타일의 초서체를 개발했다.

창세기 11장의 구절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 그들은 벽돌 굽는 기술을 적용했으므로 이제 그 이전에 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때보다도 훨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역에 역청(“이광”(泥鑛)/slime)이 널려있었으므로 그것을 모르타르로 사용했다.



수메르에서 나온 고대 벽돌

왼쪽의 벽돌은 태양에서 말린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900°F에서 구운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벽돌을 견고히”(창세기 11:3) 구웠다. 이들 두 개는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인데, 다소 나중 시기의 것이다. 그들은 호주의 고고학 연구소 소유이다. 오른쪽 벽돌을 호주 멜버른의 벽돌공들에게 가져가 보았다. 그들은 이 벽돌이 거의 용해되는 단계인 약 900°F의 열을 가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대의 벽돌은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굽지만, 이들 고대의 벽돌은 분명 “견고히” 구웠다.

흥미로운 점은, 벽돌의 윗면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오른손 자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벽돌을 용광로로 보내기 전에 톱툰 쳐서 모양을 만들면, 그 윗면에 손자국이 남는다.

바빌론 - 바벨탑이 있는 곳

이것들은 고대 바빌론의 폐허이다.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양의 고대 행정 건물을 이 장소에 재건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기록이 있으며, 또한 하프와, 오르간 및 초기에 금속을 사용한 내용들이 나온다. 초기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Tell Hassuna, 니네베, Tell Chagar Bazar 및 기타 지역과 같은 곳에서 나온 발굴물들을 보면, 그러한 기술적인 업적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성경고고학에 의한 설명/Illustrations from Biblical Archaeology*이라는 책에서, Donald Wiseman 교수는 Oannes라는 신에 관한 신화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그 신은 새롭게 창조되는 바빌론의 주민들에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의 문명 생활에 필요한 글쓰기와 숫자, 그리고 농업, 낙농(동물의 이름짓기), 건축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 등을 날마다 가르쳤다.”

창세기 10장에는 놀라운 “민족들의 표”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고대 민족의 시작에 관한 기록이다. W. F. Albright 교수는 이것을 “놀랍게도 정확한 문서”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고대 문헌에서 독보적으로 서있으며, 심지어 그리스에서도 그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이 없다.”



바빌론과 바벨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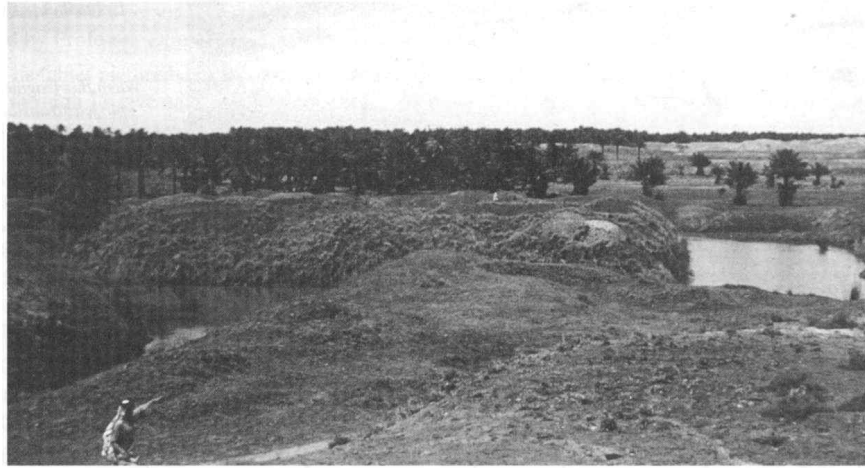
바벨탑이 이 고대의 도시 바빌론에 위치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심지어 바벨탑과 언어의 혼잡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 발견된 서판 중의 하나에서, 인간이 건설하는 건물에 대해 신들이 불쾌해 했기 때문에 인간이 분산한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인류는 하루밤 사이에 분산했으며,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졌다.

바벨탑의 위치

현대의 바빌론에 있는 이 커다란 웅덩이는 원래의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초기 구조물의 폐허 위에 있는 것이다. 그 위치가 어디든 간에, 바벨에서부터의 분산과 언어의 혼잡에 관한 사실을 현대의 학자들이 심각하게 논의했다. 미국 동양 학회(American Oriental Society)는 유명한 고고학자 E. A. Speiser에 경의를 표하여 일련의 수필을 출판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S. N. Kramer 교수가 쓴 한 수필의 제목이 “언어의 바벨 - 수메르 판”이었다. Kramer 박사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E. A. Speiser는 “바벨탑” 설화의 메소포타미아적 배경을 독특한 통찰력과,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분석하여, 그것이 “설형문자 문헌에 있어서 논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Kramer 박사는 그의 논문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바벨탑’ 주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동기 중의 하나에 새로운 대조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Speiser의 결론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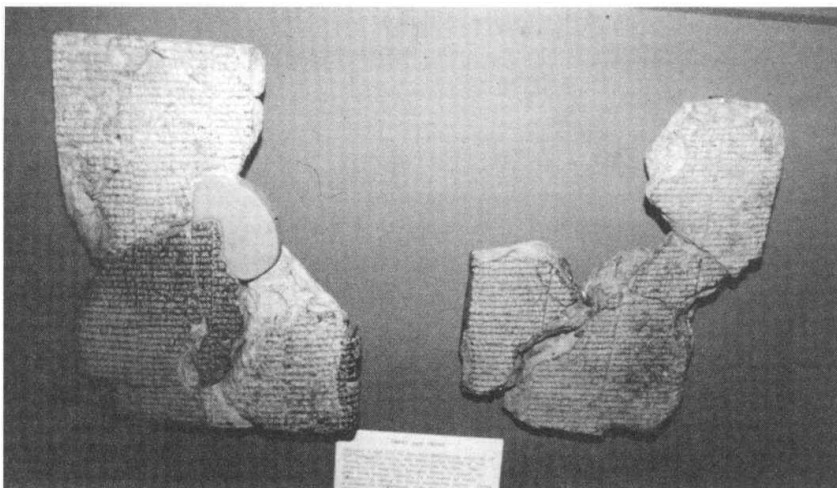
Speiser 교수 혼자만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는 여러 학자들이 순전히 신화적이라고 간주했던 초기의 문명에 관하여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Robert Braidwood 교수가 있다.



바벨탑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장소

바벨탑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의 일부가 Hillah에서 집을 짓는데 사용되었는데, 이곳은 바빌론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큰 마을이다.

아트라하시스/Atrahasis의 서사시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

이 조각난 서사시가 번역되었을 때 창세기의 앞부분 장들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이 서사시는 창조와 홍수와 같은 사건의 열등한 기록이다.

조각난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를 번역한 이래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창조와 홍수의 역사를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와 기타 기록들이 창세기 앞부분 장들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의 관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의 고고학 글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고대의 기록인 *엔메르카르/Enmerkar의 서사시*는 에덴동산의 기록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거기서는 딜문/Dilmun의 땅을 “사자가 어린양을

죽이지 않고 이리가 어린양을 잡아먹지 않는 맑고 밝은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 1970년대에 시리아에서 발견된 에블라 서판에는 알려진 장소의 목록에 딜문이 들어있다. 딜문이 실제의 장소였다면, 에덴이 아닐까? 아마도 딜문이 사실상 에덴이었을 것이다! 그 둘 사이에는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다 - 원래 죽음이 없다는 것과, 동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고 있다는 것 등.

창세기 앞부분 장들의 사실적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다른 서판들에 의해 더욱 보증이 되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빌론의 “아다파/Adapa의 신화”에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생명의 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죄의 기원은 직시하지 않고 있다. 도덕적인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음모를 가진 부도덕한 신들이 분명히 개입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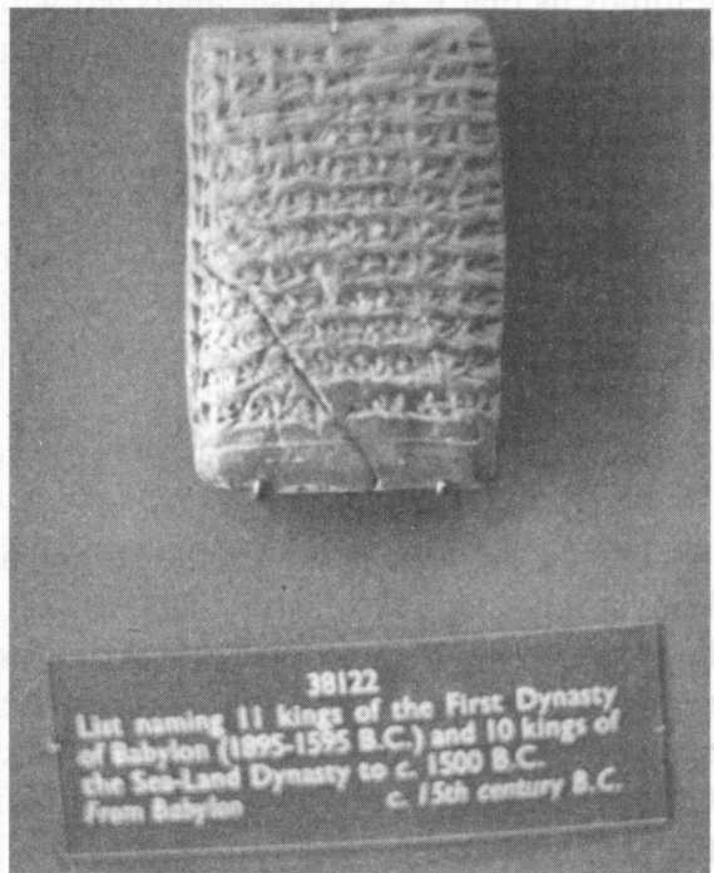
고고학은 왕들과 통치자들의 이름을 낸다

고고학은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 경우에, 바빌론 첫 번째 왕조의 왕들의 목록이 있으며, 다음에는 약 BC 1,500년으로 내려가 그 이후 왕조의 1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보다 훨씬 더 단편적이다. 오직 히브리 사람들만 그들의 초기 역사에 관해 믿을만하고 정확한 기록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왕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아담까지 이른다.

성경 자체에 따르면 기록들은 글로 적힌 형태로 있다. 즉,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창세기 5:1): 원문의 “sepher”는 “책/book”을 의미한다. 주변 국가들의 글쓰는 스타일로부터의 증거에 의하면 서판의 끝에 명명된 사람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서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세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켰을 때는 그가 원래의 저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개인적인 지식으로 쓴 것이다. (P. J. Wiseman이 쓴 *창세기에 관한 바빌론에서의 새로운 발견/New Discoveries in Babylonia about Genesis* 및 Donald Wiseman 교수가 개정하여 다시 발행한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실마리/Clues to Creation in Genesis*를 보라.)

위의 사진에 있는 서판에는 홍수 이후의 열 명의 왕들에 대한 바빌론의 기록이 들어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기록된 형태로 보존되었고, 홍수 이전까지 거슬러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창세기의 기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존된 것이 고대의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바빌론 왕들의 이름 목록

이 서판은 BC 1895-1595 사이의 바빌론 첫 번째 왕조 11명의 왕들과, BC 1,500년까지 내려가며 10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글쓰기는 초기의 기술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개관

창세기 1장 : 창조에 관한 기록. 바빌론의 서사시 *Enuma Elish*와 표면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빌론의 서사시는 수세기에 걸쳐 변질되고 왜곡되었으며, 괴이한 불합리성을 담고 있다.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는 창조와 홍수를 다루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의 역사기록(창세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창세기 2장 : 에덴동산을 이야기함. *엔메르카르 서사시*와 약간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거기서 딜문/Dilmun의 땅을 “사자가 어린양을 죽이지 않고 이리가 어린양을 잡아먹지 않는 맑고 밝은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 에블라 서판에는 장소의 목록에 딜문이 들어있다.

창세기 3장 :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다. 바빌론의 아다파/Adapa의 신화와 표면적 유사성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생명의 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기원은 다루고 있지 않다. 완전히 도덕적인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음모를 가진 부도덕한 신들이 분명히 개입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와 뱀을 묘사하는 봉인이 니네베의 북쪽에 있는 Tepe Gawra와 니네베에서 발견되었는데, 니네베에서 발견된 것에는 나무도 들어 있으며, 우르에서도 발견된다. 그것들은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는 것이다.

창세기 4장 :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야기를 말한다(창세기 4:17). 21절은 하프와 오르간을 말하며, 22절은 금속의 초기 사용을 지적한다. 초기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Tell Hassuna, 니네베, Tell Chagar Bazar 및 기타 지역과 같은 곳에서 나온 발굴물들을 보면, 이번 장의 일반적인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창세기 5장 : 수백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죄와 질병의 영향이 지금처럼 그리 크지 않았다. 홍수 이전에는 기후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고대의 Kish에서 발견된 수메르 왕의 목록에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거기서, **홍수 이전**의 왕들이 수천년 동안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훨씬 짧은 기간동안 살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바빌론의 숫자들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 창세기에 있는 숫자들과 유사하게 된다.

창세기 6-9장 : 홍수 바로 이전과 홍수 자체와 홍수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우르/Ur, Kish, Fara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홍수가 **아니라**, 다른 시기의 홍수를 말하고 있다. 창세기는 죄지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길가메쉬 서사시*에서와 같이 괴상한 것은 없다.

창세기 10장 : 고대 국가의 시작을 기록한, 주목할만한 “민족들의 표”를 담고 있다. W. F. Albright 교수는 그것을 “놀랄 만큼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 11장 : 바벨탑, 언어의 혼잡, 민족의 분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것 등을 말한다. 우르의 왕 우르남무/Ur-Nammu(BC 2044-2007)는 신들로부터 지구라트 같은 것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발견된 서판에 의하면 그것이 신들을 크게 노하게 하여, 신들이 밤에 그것을 무너뜨렸으며, 인간의 언어를 뒤섞었고, 사람들을 널리 그리고 멀리 퍼지게 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한때 현재의 역사적 사건을 초월하는 “초역사적인”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실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장들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해 필요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조상을 한 사람까지 추적하는 유일한 책이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묘관”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친구, 계시자, 심판자, 구속자, 회복자, 및 격려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들 교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전되며,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될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을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소금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바닷물 속의 소금 성분을 햇빛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보드라운 소금을 얻는 천일제염법과 큰 솥에 넣어 물을 끓여내어 굵은 소금을 얻는 재제염 등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암염(巖鹽)이라는 소금을 함유하는 바위에서 채취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얻는데 반하여 이스라엘 지방에는 사해 근처에서 나는 암염으로부터 소금을 얻게 된다.

암염속에 들어 있는 소금 성분을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소금을 추출해야만 하는데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그면 그 물에 소금 성분이 추출되어 나오고 그것을 반복하고 농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처음 암염에서 소금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에는 점토와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소금(암염)이 그 맛을 잃으면(소금 맛을 다 추출하고 나면) 소금 성분이 없어지고, 그 찌꺼기는 쓸데 없으므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이다.

암염이 많이 생산되는 지방에서도 밖으로 노출되어 비를 많이 맞은 암맥은 짠 맛이 거의 없고 땅 속에 들어있는 암맥에서는 짠 맛을 많이 내는 것도 알려졌다.

ps)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얻어지는 전통적 천일염은 매우 양질의 소금인데 특히 바닷속의 요오드(I) 성분이 많이 녹아 있어서 피를 맑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요오드 성분은 미역 등 해초에 많이 있어서 산모들이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이다.

문제는 서해안도 공업지대가 되면서 폐수 때문에 예전의 방법으로 양질의 천일염을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인 천일제염법이라야 마그네슘(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의 성분)성분이 적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없애려면 다시 구워내야 한다. 시중에 팔리는 '구운 소금'이 바로 마그네슘 성분(쓴 맛이 있음)을 없앤 가공 소금이다.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